간디, 힌두교 축제서 '악마' 묘사 논란

최근 열린 인도의 가장 큰 힌두교 축제인 '두르가 푸자' 에서 인도 민족운동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를 악마로 묘사한 듯한 구조물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축제 구조물의 남성상이 간디를 연상케한다는 논란이 일자 남성상에 콧수염과 가발이 추가 됐다. 사진=etvbharat.com

공개된 이미지를 보면 힌두교의 두르가 여신이 안경을 쓰고 지팡이를 든 대머리 남성에게 삼지창을 겨누는 모습이 보인다. 이 남성상이 간디를 연상케한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이다.

논란이 되자 경찰은 조사에 착수해 주최 측에 남성상에 가발과 콧수염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고 주최 측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다가 마지못해 변경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간디(1869~1948)는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이자 인도 건국의 아버지, 비폭력 저항가로 불리며 세계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일부 힌두교 강경파들은 간디가 독실한 힌두교 신자이면서도 파키스탄 등 이슬람권까지 포용하려고 했던 점을 들어 "힌두교를 배신했다." 며 비판해 왔다. 여기에 힌두교 강경파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1947년 영국에서 분리 독립한 뒤 유혈 분쟁을 빚은 데에도 간디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있다. 1948년 간디를 암살한 범인 역시 극우 힌두교도였다.

두르가 푸자는 두르가(Durga) 여신을 숭배하는 방글라데시와 인도 동부에서 9월이나 10월에 열리는 가장 큰 힌두교 축제이다.

파티한 브라질 부부 처벌 위기, 왜?

파티를 벌이면서 환경을 훼손한 부부가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사건은 늘 관광객이 붐비는 브라질 마투그로수의 케이메페 폭포에서 최근 발생했다. 폭포의 물은 깨끗하고 수질도 좋아 인근 주민들은 식수로 사용한다.

▲ 젠더리빌 파티를 위해 인근 주민들의 식수원을 오염시킨 부부가 브라질 환경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사진=트위터(vanecosta10)

문제의 부부는 케이메페 폭포에서 젠더리빌 파티를 열었다. 젠더리빌 파티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2세의 성별을 공개하는 파티다. 브라질 등 남미에선 이 파티가 유행처럼 확산해 최근 아기를 가진 젊은 부부들이 필수처럼 여기는 이벤트다.

부부는 젠더리빌 파티를 열면서 폭포 주변에 풍선으로 황새를 만드는 등 잔뜩 분위기를 냈다. 서양에는 황새는 아기를 물어다주는 새라는 전설 아닌 전설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풍선 등 소품을 이용한 데코가 아니라 폭포였다. 부부는 파티를 열면서 마치 요술을 부린 것처럼 폭포의 물을 형광에 가까운 파란색으로 바꿔버렸다.

환경전문가들은 "요정이 등장하는 영화에서나 CG로 나올 법한 색깔이다. 폭포 상류에서 무언가 물질을 물에 푼 것이 확실하다." 며 "식수원을 오염시켰다면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고 말했다.

브라질의 환경공학자 바네사 코스타는 "축하합니다. 아름다운 환경범죄의 부모가 되시겠군요." 라고 부부를 점잖게 꾸짖었다.

질책이 쏟아지자 브라질 환경당국은 조사에 나섰다.

생방송 도중 이재민 도운 카메라맨

▲ 허리케인 이안의 피해 상황을 생방송으로 전달하던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이재민을 돕기 위해 뛰어가는 모습. 사진=트위터(Sunruse)

호주의 한 방송국 소속 카메라맨이 생방송 도중 카메라를 내려놓고 이재민을 돕는 모습이 전파를 타며 감동을 전했다.

지난달 28일 '야후 뉴스' 에 따르면 호주 7뉴스 소속 카메라맨 그랜 엘리스는 이날 특파원팀 리스터와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이안' (Ian)의 피해 상황을 보도하는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리스터 뒤로는 물이 범람한 도로와 아이를 안고 대피하는 이재민들의 모습이 보였다. 엘리스는 이 모습을 본 뒤 특파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카메라를 내려놓고 물에 잠긴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가 이재민을 돕기 시작했다.

이재민들이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르거나, 물살이 센 구간을 지나는 주민들을 도우며 한참을 뛰어다닌 후에야 엘리스는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그 사이 특파원이 엘리스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았고, 이 장면은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폭스뉴스는 "(그가 사람들을 돕는 장면의 앵글은 좋지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한 플로리다 주민들을 향한 마음은 분명 최고였다." 고 전했다.

허리케인 이언은 미국 역사상 5번째로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평가됐다. 지난 2일 오후 6시 기준, 이안의 여파로 최소 80명이 사망했다. 피해 지역에서 수색 및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사상자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각종 디스크 및 협착증세 치료 최고 권위 전문의!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UC Irvine
LA 척추신경의대
CA척추신경보드 전문의
CA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주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1년

디스크 협착증 증세로 고통 받는 분들이 수술 않고, 통증 없는 치료 후 기적 같다며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모습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목 · 허리 디스크 탈출증 / 좌골신경통 / 퇴행성 디스크 / 척추관협착증 / 만성요통

★ 각종보험 및 메디케어 환영 (HMO Group : SMG, CENTER 환영)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 머리 두통/어지럼증/안면마비증세
- 목 목디스크 (팔과 손가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 어깨 굳거나 뻐근한 통증/어깨가 안돌아가는 증상(Frozen Shoulder) / 오십견/견비통
- 등 척추측만증(Scoliosis) 특수교정(특히 초등학생 때 조기 검진중요)
- 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엉치, 다리,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퇴행성 관절염/요통/산후 허리통증
- 팔 팔꿈치 통증/Tennis Elbow/손목/Carpal Tunnel Syndrome/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 다리 좌골 신경통(다리, 발바닥, 발가락 통증,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무릎통증/발목통증/쥐증상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및 각종 일반 사고 후유증 전문치료

- 31년의 풍부한 임상경험
- 흉내 낼 수 없는 풍부한 의학 지식
- DRX 9000 (최첨단 디스크 감압치료기)

위에 3가지가 모두 함께 공존하며 윤동준 원장이 직접 정성으로 치료하기에, 정확한 진단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성공률의 각종 디스크 치료의 "최고 권위 전문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Yoon Chiropractic 윤동준 척추신경 병원 714. 539. 1717
12620 Brookhurst St. #5, Garden Grove